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와 연계 기초 기능 교육에 대한 인식과 활성화 방안

최근 건설현장의 건설기능인 고령화와 더불어 청년층 유입 감소세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청년층을 건설산업에 유인하고자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기초 기능 교육' 도입이 매우 필요하며, 전문공사 업종별 통합교육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나타남.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기초 기능 교육'은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직업전망 제시로 청년층 건설산업 진입과 숙련 형성 촉진을 위한 인력양성체계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수료생의 취업 연계 방안 마련뿐 아니라 기능등급제 연계 인센티브 마련 등의 기능등급제 참여자 확대 전략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건설업의 청년층 신규유입을 위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활성화와 '연계 기초 기능 교육' 시행에 시사점 제시 필요

-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3D(Difficult, Dangerous, Dirty) 산업이라는 인식으로 청년층의 유입이 낮은 경향을 나타냄
 -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건설근로자공제회, 2024)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진입 연령은 평균 39.4세로, 2~30대 청년층의 유입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 이에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기초 기능 교육'을 신설하여 청년층의 건설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직업적 비전을 제시하여 건설산업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
- 이 글에서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와 '연계 기초 기능 교육'에 대한 전문건설업체 종사자 및 건설기능인력의 인식을 확인하여 청년층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참여 활성화와 '기초 기능 교육' 시행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7조의5에 의거하여 '21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종별 기능등급(초·중·고·특)을 구분·관리하는 종합 경력관리 체계임. 기능등급제 우선 도입 직종 49개를 대상으로 기능인의 시공 전문성 향상과 등급별 역량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이 글은 '한애리 외(2025).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기초 기능 교육과정 개발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고 재정리함.

분석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직업능력연구원,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기초 기능 교육과정 개발 지원, 교육과정 적정성 설문조사(2025)」

- 조사 및 분석 대상: 전문건설업체 종사자 및 건설기능인력 42명의 데이터를 2025.3.10.~3.13.까지 수집하여 분석함
 - 응답자는 전문건설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이며, 경력이 30년 이상이 21명(50.0%), 20년 이상부터 30년 미만까지 11명(26.2%), 10년 이상부터 20년 미만까지 10명(23.8%)으로 구성됨
- 조사내용: 응답자 특성(4문항),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관련 인식(5문항), 기초 기능 교육 관련 인식(6문항), 기초 기능 교육 적정성(7문항), 교육훈련기관 요건(4문항) 등 5개 항목 총 26문항으로 구성됨

02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관련 인식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경력관리와 취업, 현장실무능력 제고, 처우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고 인식함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가 건설기능인력의 경력 관리와 취업에 주는 도움 정도에 대해 '도움됨' 19명(45.2%)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도움됨' 18명(42.9%) 순으로 나타남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가 건설기능인력의 현장실무능력 향상에 주는 도움 정도에 대해 '도움됨' 19명(45.2%)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도움됨' 18명(42.9%) 순으로 나타남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가 건설기능인력의 처우 개선에 주는 도움 정도에 대해 '도움됨' 24명(57.1%)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도움됨' 9명(21.4%), '보통' 7명(16.7%) 순으로 나타남

표 1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가 경력 관리와 취업, 현장실무능력, 처우 개선에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
경력 관리와 취업	-	-	5(11.9)	19(45.2)	18(42.9)	42(100.0)
현장실무능력 향상	-	-	5(11.9)	19(45.2)	18(42.9)	
처우 개선	-	2(4.8)	7(16.7)	24(57.1)	9(21.4)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기능등급보유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기능등급보유자 건설현장 배치기준 마련'이 1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능등급별 적정 임금체계 마련' 18.8%, '시공능력평가 시 기능등급 보유 인원(비율) 가점으로 반영' 16.7%, '입찰 시 기능등급 보유 인원(비율) 가점으로 반영'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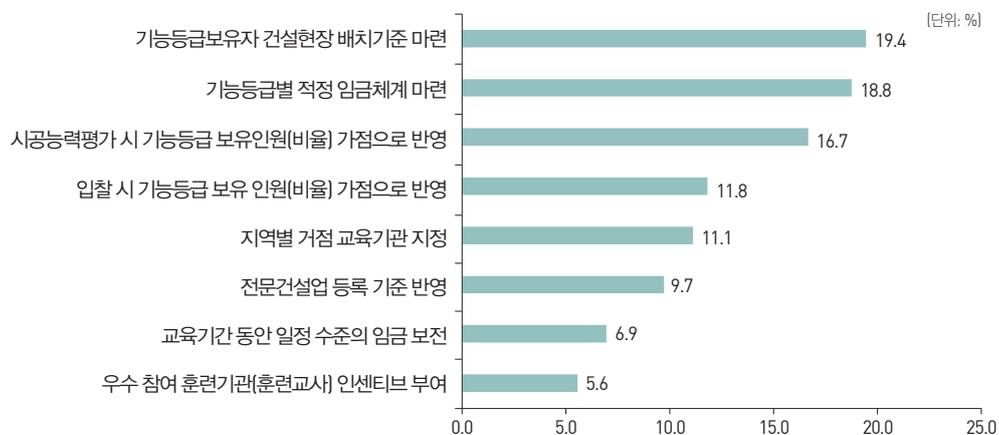


그림 1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주: 복수응답을 포함한 전체를 100%로 환산하여 제시함

03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기초 기능 교육' 관련 인식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기초 기능 교육'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기초 기능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함' 21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필요함' 20명(47.6%), '필요하지 않음' 1명(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2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기초 기능 교육'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사례 수(비율)	0(0.0)	1(2.4)	0(0.0)	21(50.0)	20(47.6)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기초 기능 교육'을 전문공사 업종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나타남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기초 기능 교육'을 전문공사 업종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적절함' 21명(50.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적절함' 7명(16.7%), '보통' 7명(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3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기초 기능 교육'의 통합 운영의 적절성

(단위: 명, %)

구분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	적절함	매우 적절함
사례 수(비율)	2(4.8)	5(11.9)	7(16.7)	21(50.0)	7(16.7)

주: 소수점 반올림으로 인해 비율의 합이 100.00이 아닐 수 있음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기초 기능 교육' 도입이 시급한 업종으로 1순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순위 '실내건축공사업', 3순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 순으로 나타남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기초 기능 교육 도입이 시급한 업종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1명(1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내건축공사업' 25명(11.9%),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2명(1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기초 기능 교육' 도입이 시급한 업종

(단위: 명, %)

순위	전문공사업명	사례 수(비율)	순위	전문공사업명	사례 수(비율)
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1(14.8)	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3(6.2)
2	실내건축공사업	25(11.9)	9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0(4.8)
3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2(10.5)	10	승강기·석도공사업	9(4.3)
4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1(10.0)	11	가스난방공사업	9(4.3)
5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20(9.5)	12	철도·궤도공사업	7(3.3)
6	철강구조물공사업	20(9.5)	13	수중·준설공사업	7(3.3)
7	기계가스설비공사업	16(7.6)	1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0(0.0)

주: 응답자는 우선순위 5개를 선택하였으며, 응답 업종별로 우선순위에 포함된 횟수를 합친 결과임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기초 기능 교육'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양성체계 기틀을 구축하고 청년층이 가진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기초 기능 교육' 운영의 기대효과에 대해 '건설근로자의 입직부터 특급수준까지 포괄하는 인력양성체계 기틀 마련'이 4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년층의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접근성 향상' 26.2%, '건설 전문공사업 신규 기능인력 공급' 14.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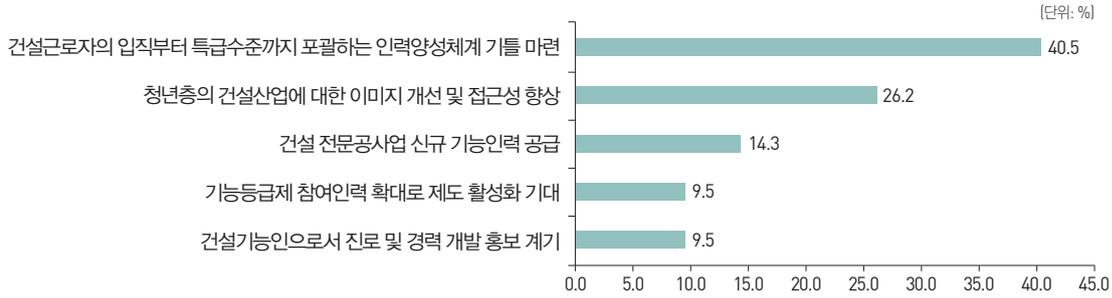


그림 2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기초 기능 교육'의 기대효과

주: 복수응답을 포함한 전체 수치를 100%로 환산하여 제시함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기초 기능 교육’ 안착을 위해서는 취업 연계, 기능등급제 참여 인센티브, 교육기관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기초 기능 교육’의 안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수료생 취업 연계 방안 마련’이 2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능등급제 연계 시 인센티브 마련’ 19.6%, ‘지역별 거점 교육기관 지정·운영’ 1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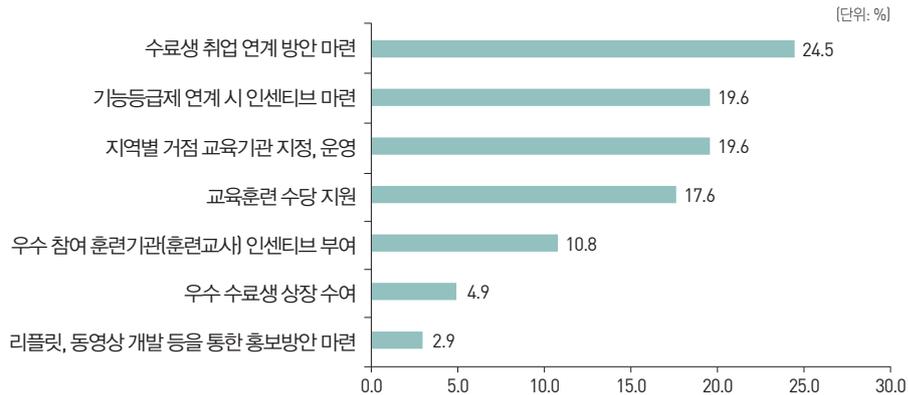


그림 3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기초 기능 교육' 안착 및 활성화 방안

주: 1) 복수응답을 포함한 전체를 100%로 환산하여 제시함
2) 소수점 반올림으로 인해 비율의 합이 100.0이 아닐 수 있음

04 시사점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기능인력의 ‘경력관리와 취업’, ‘현장실무능력 제고’, ‘처우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능등급 보유에 따른 실질적 혜택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기초 기능 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높으며, 전문공사 업종별 통합교육으로 제공하고,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의 업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기초 기능 교육’은 청년층에게 건설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더불어 직업적 비전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건설기능인의 수급 및 숙련인력양성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기초 기능 교육’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료생의 취업 연계 방안 마련뿐 아니라 기능등급제 연계 인센티브 마련 등으로 기능등급제 참여자 확대 전략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